

4월 7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4월 7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숨고르기’ 뉴욕 하락	4주 연속 랠리에 따른 부담감이 고개를 들면서 숨고르기 장세가 펼쳐졌고 알코아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개막되는 어닝시즌에 대한 경계감도 투자심리를 짓눌러 뉴욕 주식시장이 하락세로 마쳤음. 다우 지수는 8,000선 아래로 떨어졌음. 은행권의 대출 손실 규모가 대공황 때보다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금융 불안감을 자극하여 금융주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음. ‘빅블루’ IBM과 선마이크로 시스템즈의 인수합병(M&A) 협상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술주도 약세를 나타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7,975.85로 전일대비 41.74포인트(0.52%)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06.71로 15.16포인트(0.93%) 내렸으며,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835.48로 7.02포인트(0.83%) 밀려났음.
금융주 ‘손실 경고-매도 권고’에 하락	금융주가 약세를 나타냈음. 씨티그룹(C)이 4.6%, 뱅크오브아메리카(BoA, BAC)가 1.6% 각각 밀려났고, JP모간체이스(JPM)도 3.7% 내렸음. 이날 월가의 대표적인 비판론자로 꼽히는 마이크 마요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은행주를 내다팔라고 권고했음. 최근 도이체뱅크에서 칼리온증권으로 옮긴 마요 애널리스트는 "미국 은행들의 대출 손실 규모가 대공황 때보다 커짐에 따라 결국 정부가 이들을 인수해야 할 것"이라며 은행주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축소(underweight)’로 제시했음.
유가 이틀째 하락..달러 강세	국제 유가는 증시 하락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잦아들면서 이틀째 하락했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5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1.46달러(2.8%) 내린 51.05달러로 마쳤음. 미국 외환시장에서 달러는 주요 통화대비 강세를 나타냈다. 증시가 하락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부각된 결과임. 오후 4시38분 현재 유로-달러 환율은 1.3408달러로 전일대비 0.76센트(0.5636%) 하락했고, 달러-엔 환율은 101.043엔으로 0.7282엔(0.7259%) 상승했음.
외화유동성 급속개선..신규차입 ‘붐물’	2월 중순 이후 급격히 악화했던 외화유동성 여건이 빠르게 나아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4~5월 시중은행의 외화 차입이 2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 무엇보다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로 돌아선 것이 달러 수급 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외화유동성 사정이 풀리면서 환율은 급격히 하향 안정되고 있고 한국물 채권의 신용도도 높아지고 있음.

제목	주요 내용
정부-은행 MOU, 中企 의무대출 목표 낮출듯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6일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이 체결한 MOU 내용을 개정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국회에서 지급보증 연장 동의안이 통과되면 6월말 이전까지 은행들과 금감원이 MOU를 다시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작년 11월 국내 18개 시중은행과 체결한 MOU는 외화유동성 확보, 중소기업 지원, 가계대출 지원, 은행 경영합리화, 자기자본 확충 등 5가지 방안이 포함돼 있음.
현대차, 1분기 국내생산 30% `뚝`	6일 현대·기아·GM대우·쌍용·르노삼성·대우버스·타타대우상용차에 따르면 올들어 3월까지 완성차 7사의 국내공장 생산은 모두 68만6,221대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32.1%나 크게 줄었음.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국내외 수요감소와 이에 따른 각사의 생산량 감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업체별로는 국내 최대 메이커인 현대차(62,100원 0.0%)가 올들어 3월까지 32만914대를 생산하는데 그쳐, 작년동기에 비해 29.4% 감소했음.
美, 英·日·EU·스위스와 통화스왑 체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스위스 등 5개 중앙은행은 미국이 외화 유동성을 필요로 할 경우 자금을 제공기로 하는 통화 스왑 협정을 체결. 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FRB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협정으로 유로와 엔, 파운드, 스위스 프랑 표시 유동성은 연방 재정에 공급될 것"이라고 발표.
러 가스프롬, 천연가스 투자 줄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동안 가스프롬이 생산량 축소를 통해 수요 감소에 대비해 왔지만, 유럽지역 가스 수요가 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5일(현지시간) 보도.
日유동성 공급...실물경제엔 못 미쳐	일본은행(BOJ)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효과가 중소기업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다고 닛케이신문이 7일 보도. 은행의 융자를 통해 얼마나 자금이 실물경제에 주입됐는지를 나타내는 '신용승수'가 지난 2월에 6.9배에 불과. 이는 2007년 4월 이래 최저 수준.
日실업급여 수급자 33년래 최대폭 증가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2월 일본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69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8% 증가. 이는 1975년 11월 이후 약 33년만에 최대폭의 증가율.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